

딸들에게 희망을

2014. 2호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발행인 조형
 편집인 박기남
 기획편집 (재)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발행일 2014년 4월 7일
 등록번호 마포마00061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5길 13
 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디자인인쇄 the Shy Letter 070-8801-6772



이꿈이들의 귀환. 5명의 슈퍼 이꿈이들이 100인 기부 릴레이를 응원하기 위해 만났다

2014 <딸들에게 희망을>은 20대 여성들이 모여 창업한 더샤이레터(the Shy Letter)의 편집과 디자인 재능나눔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Contents

사립문

리더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하여 조형_한국여성재단 이사장 03

기획

한국여성재단 뉴(NEW) 지원사업 04
 행복한 엄마의 조건 05
 마을살이가 주는 즐거움 06
 조세영 감독의 영화로 말걸기 07
 리디자인의 시작, 오늘 잘 오셨어요! 08

나눔과 공감

2014 100인 기부 릴레이, 이꿈이들의 귀환 10
 기생충에게서 배운다, 서민교수의 기생충 열전 12

함께 만드는 변화

말할 수 있는 용기 14
 국경을 넘어 아시아 지역 자매애로 16

소식

재정보고 18
 후원현황 20
 재단소식 22

2014 이꿈이와 기부자가 만나는 날,
 한국여성재단이 응원합니다! 23

사립문

리더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하여

환하고 따스한 햇살과 새 생명의 기운이 완연한 봄날, 사립문 활짝 열어 환영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 뽐내는 겨울올림픽을 안방에서 즐기는 동안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참가하는 것, 아름답게 참가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선수들의 메달소식에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한국인이 지닌 총 재능의 적어도 반은 여성들이 갖고 있으며, 여성들이 지닌 잠재력을 갈고 닦고 또 응원하면 그 결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이 이웃과 인류와 지구를 위한 일을 하도록 잠재력을 키울 기회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여성재단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도 잠시, 세 모녀의 자살 등 연이은 빈곤이 불러온 자살과 고독사 소식들이 가슴을 에었습니다. 자살 1위 국가 한국에서 이제는 불행의 책임을 가족이나 정부에 돌리기전에, 서로의 안녕을 보살필 수 있는 이웃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가 실천할 일입니다. 지역의 행정력으로 이웃을 불행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토목공사나

각종 전시행정으로 박수받는 시대는 지나고 지역 주민에 대한 애정과 진정성으로 칭송받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지역 주민을 살리는 일도 살림의 전문가 여성들에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요?

재단의 사업들이 조금씩 진화를 하여, 나이, 학력, 직업,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이 사회문화적인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관행을 바로 잡는 적극적인 리더로 성장하도록 응원하고 '투자'하는 사업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부터, 세상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녔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여성활동가와 예술가들을 조건없이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비록 각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미래에 약속된 그들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투자입니다. 또, 성매매업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자립을 꾀하면서 배움의 길에 들어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 소문이 나자, 많은 후배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눔은 투자가 되고 투자는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4월에는 여러분이 나눔의 즐거움을 경험하실 100인 기부 릴레이가 진행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참여하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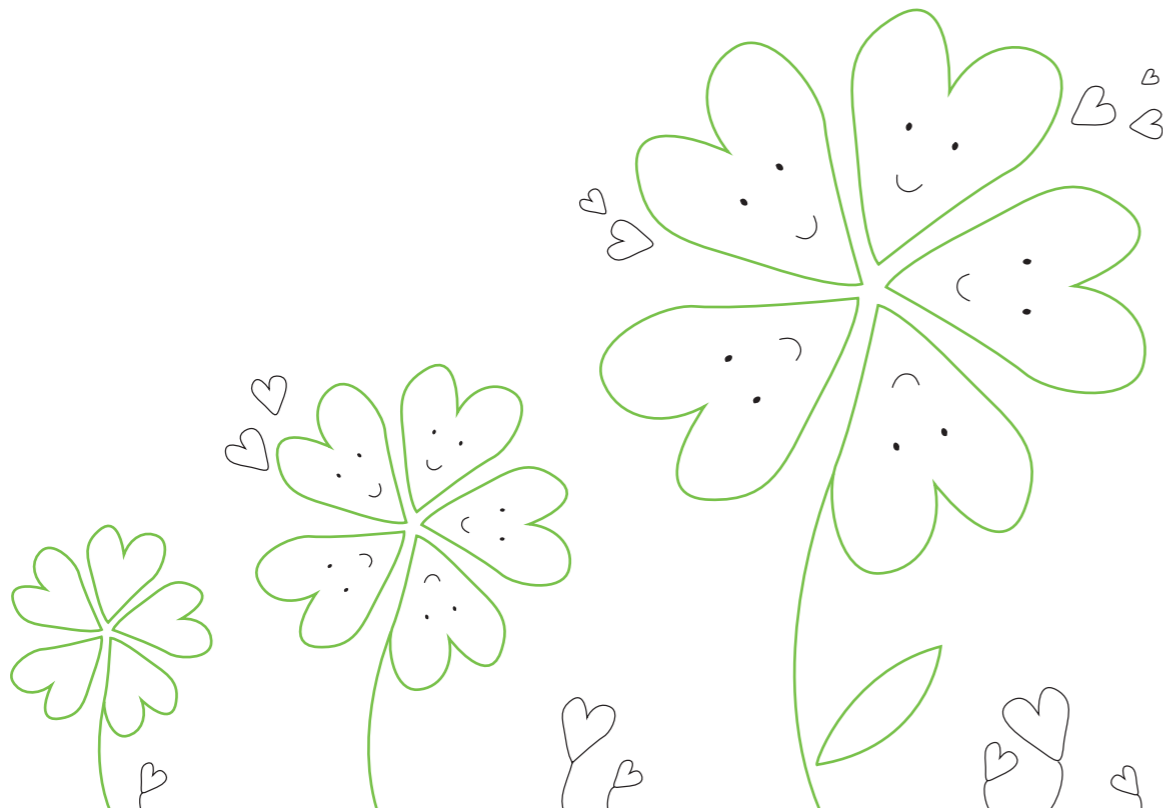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조형**

기획

한국여성재단 뉴(NEW) 지원사업

나눔의 가치가 꽃피는 100인 기부 릴레이가 찾아왔다. 기부금의 쓰임새가 좀 더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2014년 한국여성재단은 새로운 지원사업 발걸음 통해 좀 더 여성의 삶에 다가가고자 했다.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 개선 사업을 통해 미혼모들의 건강을, 지역돌봄사업을 통해 풀뿌리여성 활동가들을, 어려운 환경속에서 창작활동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여성예술인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들의 삶의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자 했다.

여성재단을 지지하는 기부자들과 파트너기업의 기부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14년의 새로운 지원사업을 소개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행복한 엄마의 조건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여성은 누구보다 더 축복받는 존재로 기억된다. 하지만 그 순간은 잠시, 엄마라고 불리는 그 신분과 역할은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예감하고 접어들게 된다. 그래서 엄마는 때로 아프고 때로는 가슴을 아리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홀로 양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그 축복의 기회조차 없었던 양육미혼모는 어느새 해마다 6,500명 이상 존재하게 되었다. 2012년 혼외 출생아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서고 신생아 100명중 2명이 혼외출생아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사회의 초점은 관심과 배려가 아니라 낙인과 차별이 싸늘함으로 묶여 단절과 절망을 준다.

21세의 태희(가명)씨는 생후 6개월된 아이의 엄마다.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을 했으나 이 사실은 알게 된 그는 그녀 곁에서 어느 순간 잠적해버렸다. 태희씨의 아버지는 임신 사실에 분노하며 연락을 끊었고 태희씨는 미혼모시설 입소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다. 임신 8개월 때 미혼모시설에서 출산을 하고 이후 단칸방에 살면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어려운 매우 궁핍한 생활을 이어왔다. 출산 후 영양보충과 산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산후풍이 와 결국 태희씨는 현재 다리를 정상적으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며 자녀는 산모의 건강악화로 인해 모유수유가 되질 않아 정상적인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100%가 규칙적인 산전관리를 받고 평균 13.3회의 산전 진료를 받고 있는 반면 규칙적인 산전 관리를 받는 미혼모 청소년은 59%에 불과했다.(2011) 진료횟수도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이고 산후 진료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2% 일반인에 비해 20% 이상 낮았다. 저체중아 출산 비율도 일반 산모의 4배에 달했다. 입양 가정은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이지만 미혼모는 의료보호 2종으로 지원받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려는 미혼모들이 느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3년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의 양육미혼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가족여행을 지원하였다.

2014 <행복한 엄마, 건강한 자녀> 사업은 양육미혼모 모자가정의 건강을 지원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함께 합니다.

여성재단은 올해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건강 실태조사, 정서건강증진, 긴급의료비지원 등 양육미혼모 가정에 통합적인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엄마는 강하다. 건강한 엄마는 행복하다.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미혼모들을 위해 여성재단은 2014년 양육미혼모지원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W

마을살이가 주는 즐거움

〈초록상상〉
건강팀장 김민지씨



동네, 마을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참 좋다. 김민지씨는 먼목동에서 태어났지만 결혼과 동시에 강남으로 터전을 옮겼다. 그리고 다시 이 동네로 돌아왔다. “주소지만 강남이었어요. 네트워크가 거의 없었지요.” 일 가정 양립을 하던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일을 그만두고 이곳으로 와보니 여긴 뭔가 할 일이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일과 병행하기 힘들어져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도 달달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나의 에너지를 다른데 쏟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알게 된 곳이 초록상상이었다.

사실은 대학 때부터 여성주의에 관심이 있었고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했던 천연화장품도 예전부터 만들어 써왔다. 여기오니 나의 관심사와 맞는 부분이었고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다.

이제 4년차, 영양학을 전공했던 터라 먹거리나,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가 가장 잘 아는 분야였다. 건강팀에서는 몸에 대한 생각들을 나눈다. 먹을거리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몸이 건강해야 하고 몸하고 떨어뜨려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성교육팀 일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급격히 변하는 자신들의 몸을 잘

모르기도 하고 몸이 보내오는 신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해서 몸을 이해하는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고 김민지 팀장은 말한다. 잘 돌보지 못하는 것이 또 여성들의 처지이기도 하다.

“오늘 아침에도 부모교육이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아이들에게 성을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지..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함께 모인 다양한 연령대 분들과 예쁜 외모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이렇게 지역 사람들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김민지씨는 자신의 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일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왠지 의기소침하고 상실감과 열등감이 생겼어요.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주변의 친구들과 달리 사회적으로 내가 덜 필요한 인간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선 이 지역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해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 그리고 여성리더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으로 자신의 성장을 꿈꾸게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과 몸을 이용한 워크숍이라든가 외모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싶어 성교육전문과정도 준비중이다. 꿈꾸는 활동가가 그리는 마을의 희망, 함께 그려나갈 모습들이 궁금하다. **W**

조세영 감독의 영화로 말걸기



평일 오후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세영 감독을 만났다. 〈자, 이제 댄스타임〉을 완성하고도 개봉관을 찾지 못해 동분서주하던 날들, 6월 인디스페이스와 인디플러스에서 개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가난한 독립다큐감독인 조세영감독은 개봉관을 찾아 배급과 마케팅까지 손수 뛰어다녀야 하는 처지였다. 마침 여성재단 여성예술인지원사업 덕분에 생활비 걱정안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만든 기회여서 너무나 다행이었다.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조감독은 “낙태에 관한 여자들의 얘기지만 이 시대 남녀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 영화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한다. 작년 제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국제경쟁부문 대상인 황기리기상을 수상한 〈자, 이제 댄스타임〉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불법인 낙태 문제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입을 빌려 낙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동아리로 출발, 주로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활동한 그가 처음 만든 작품은 해외에 입양되었다가 한국에 돌아온 이들의 이야기 〈메이드 인 한국인〉이었다. 꾸준히 불편한 진실에 대해 카메라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독립다큐의 영역에서 일한지 10년, 여유만 되면 해외로 나이가 좀 더 견문을 익히고 싶었다. 마침 대학원에서 2012년 영화제

작 공부도 시작하게 되었다. 그의 전공은 영화 연출, 다큐를 고집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새 그는 독립영화 다큐현장의 베테랑이 되었다.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기란 어떤가. 주로 그 대답은 흥행성적으로 나타난다. 한 영화를 만 명이 보면 만 명의 시선이 있듯 다양함이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아쉽다. 친구들과 연인들이 만나면 으레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소비하는 것. 요즘의 천만 관객 영화는 지원과 배급을 함께 주도하는 기형적인 문화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영화를 취향이나 향유하는 문화라기보다는 소비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속에서 시나리오와 촬영, 배급까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인 셈이다. 외국에는 시나리오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를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며 시나리오 완성을 돕는 지원도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작고한 최고은씨가 불현듯 생각난다. 문화강국의 면모는 흥행 성적이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이런 환경이 우선적으로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지난 가을과 올 봄, 막바지 편집 때문에 학교도 연이어 휴학했다. 곧 다가오는 개봉일. 잠을 못 이룰 듯하다. “다음엔 멜로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웃는 그의 얼굴에 여유가 보인다. 젊은 영화인의 고군분투가 될 6월, 자, 이제 댄스타임! **W**

리디자인의 시작, 오늘 잘 오셨어요!

얼굴빛이 붉어지고 언제부턴가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난데없는 짜증과 우울, 더 이상 생리도 하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지는 그런 때를 우리는 갱년기라고 부른다. 그리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단어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처럼 다가오기에 묵묵히 받아들였던 것도 사실이다.

건강토크 리디자인토크쇼NOW는 중년여성을 위한 힐링콘서트로 내츄럴엔도텍이 지원하고 여성신문과 여성재단이 주최한 신개념 토크쇼이다.

내 삶을 바꾸는 **건강토크 리디자인토크쇼NOW***는 갱년기를 자신의 새로운 인생 2막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마포구와 도봉구에 이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에는 동작구 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열렸다. 가수 이한철씨가 〈하쿠나마타타〉를 부르며 자리잡고 앉은 여성들의 감격을 일깨워주고 여성학자 오한숙희씨가 마음 건강을, 권오중 박사는 몸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언제부턴가 마음은 있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에게 오한숙희씨의 무한 칭찬으로 콘서트가 시작됐다. 몇호선이세요? 2호선부터 9호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까르르 웃으며 긴장감이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질문했다. 50대 이후 삶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설계도를 만들어 갈 무기는 무엇인지를, 돈, 건강, 동반자, 친구, 나, 꿈, 강...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솔개라는 새가 사는 방식

40년을 산 솔개는 동굴에 들어가 낡은 부리를 돌에 쪼아 부서버리고 그 자리에 새로 난 부리로 낡은 발톱을 뽑아내고 새 발톱으로 깃털을 뽑아 새 깃털이 돌아날 때까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기간을 지낸 후 새로운 모습으로 남은 40년을 사는 새. 오한숙희씨는 사람도 그런 재탄생의 과정을 겪으며 다시 나를 찾는 과정이 바로 갱년기라고 말한다. 어쩌면 여성으로서의 나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나를 찾는 과정, 그리고 그 주인공은 바로 나다. 이제 자신감과 실천으로 인생의 반을 어떻게 실천할까? 계획하면 된다.

권오중박사의 몸 건강이야기는 의학적 검진과 예방, 그리고 받아들이다.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찾아오는 갱년기가 우리 몸에 주는 변화는 바로 전반적으로 약해진다는 것. 근력, 심장기능, 기억력 등, 그리고 심리적으로 짜증, 우울, 공격적인 모습들. 바이러스처럼 몸 전체로 퍼지는 무기력증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바로 움직임이다. 일주일에 4번 이상 30분 걷기. 쉽게 할 수 있는 이 습관이 우리를 또 다른 나로 만들어줄 것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면 어느 순간 내면의 힘이 길러지게 된다. 식이섬유와 덜 짠 음식들을 가까이 하기, 단음식 피하기(이 대목에서 약간 움찔하실 분 여럿 있겠다),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지만 돌보지 않으면 배 이상 힘들게 지내게 될 지도 모를 일, 지금 당장 실천하기!

마음먹기에 따라 나도 달라진다

여성이라면 누구에게 찾아오는 그 시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따라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인식문제다. 누구에게나 갱년기는 오지만 어떻게 갱년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을 잘 보내거나 힘들 수 있다고 권 박사는 말한다. 40대 이후 우리의 수다 중 반 이상이 건강에 관한 이야기다. 아침 저녁 다른 몸과 증상들, 누구에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슬픈 나날들, 우선 터놓고 얘기라도 해야겠기에 오늘 이 자리는 꼭 필요한 날이었다.

상도동에서 사는 이영자(65세)씨는 상기된 얼굴로 토크쇼장을 나왔다. 오늘 처음 만난 옆사람과 모처럼만에 맘껏 시원하게 웃고 외친 탓이다. 오늘부터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꼭 실천하겠가며 오한숙희씨가 하는 말을 다 적어놓았단다. 돌육터에서 일하는 공미경(50세)씨는 곧 다가올 갱년기 주변의 말로만 듣던 갱년기 즐겁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단다. 막연히 힘들겠구나 생각했던 것을 겁내지 말고 식습관 등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며 즐겁게 갱년기를 맞이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모인 여성들의 자기 고백들이 쏟아진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엔 너무 바쁜 일상들, 아이들과 남편, 집안의 대소사를 거들다보면 무엇보다 내가 건강해야만 한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오한숙희씨는 마지막으로 5계명을 전했다.

지금은 앞으로 올 자신의 인생 중 가장 젊은 때임을 명심하라

1순위는 나. 공연장에 모인 이들이 각자 자신의 이름을 크게 불러본다. 잘했다. 숙희야. 마주보고 또 외쳐본다. 마주보고 외치는 가운데 힘을 느끼고 나를 격려하는 이 자리에서 마주한 상대방은 당신을 격려해줄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과거**는 잊는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후회스럽거나 억울해 잠자리에서도 벌떡 일어날 만큼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이제는 잊자. 그리고 정신의 근육을 키우자. **3년을 투자하자**. 무엇을 하든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천일동안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자리에서 계획한 것은 꼭 3년을 동안 습관처럼 해보자. **사랑하자**(다른 설명 필요 없을 듯). 그리고 **오늘을 살지**어다. 오늘이 없고는 내일이 있을 수 없듯이, 다가올 앞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버리지는 말자고 말이다.

갱년기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시기라는 걸 오늘 두 분, 몸과 마음 건강 전도사가 전해주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하지만 나를 위한 몸과 마음을 리디자인하기 위해선 당신이 지금 생각한 것, 바로 실천하면 된다. **W**



이꿈이들의 귀환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는 알고 있다. 여러 해 100인 기부 릴레이가 진행되는 때만 되면 홈페이지 이꿈이 명단에 오른 이름들. 오늘은 여성재단 기부자로, 슈퍼이꿈이로 함께 했다. 기부 릴레이 11년 동안 단 한번 빼고 10년간 기부 릴레이 이꿈이로 완주한 이경순이사, 고등학교 입학 앞둔 2년차 이꿈이 이슬아학생, 그녀의 주자이자 어머니이자 이꿈이인 이윤정교수, 전 행복중심생협 이사장이자 지금은 마을기업 인큐베이터로 변신한 김연순님. 그리고 역시 딱 한번 빠진 10년 연속 이꿈이 안중길대표. 역시 첫 만남은 어색했다.

이들은 이꿈이라 불리기 전까지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꿈이로 불려주었을 때 여성재단으로 와서 나눔의 씨앗이 되었다. 한 분야에 10년이란 보통 달인이라 부르는데 기부의 노하우를 들려달라는 주문에 대한 답은 무조건! 당연하다는 것! 믿으니까!

100인 기부 릴레이는 팀플레이

“처음 할 땐 완주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지만 조금만 애쓰면 완주가 가능하죠.” 먼저 이경순이사가 노하우를 전한다.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 팀플레이로 자주 가는 동창 사이트에 100인 기부 릴레이 내용을 올려놓고 댓글형식으로 주자를 모은다. 그리고 기부에 응한 주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맙다는 답글을 올린다.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글들은 주변 친구들의 기부욕구를 불사른다. 역시! 하는 감탄이 쏟아졌다.

학교친구들과 선생님을 찾아가 여성재단을 소개하고 기부를 요청하여 100인 기부 릴레이를 이끌었던 이슬아학생은 이 자리에서 평생 이꿈이를 약속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안중길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예전과 달리 건축분야에도 여직원이 반 정도는 되어서 여성재단을 설명하기가 수월하다고 말한다. 여직원 열 명이 고등학교 동창 두 세 명만 요청하면 완주도 어렵지 않다고 학연의 올바른 예를 추천했다.

기부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부한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꼭 알려달라는 이윤정교수의 당부도 있었다. 기부자에게 문화나눔의 혜택을 주거나 모임을 열어 만나기도 하지만 여성재단의 투명한 지원이야말로 가장 큰 홍보라는 말도 전했다.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는 사용처에 대해 김연순씨는 무엇보다 여성재단의 활동가 쉽프로그램을 손꼽는다. 개인기부금으로 지원하는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그 일을 도맡아 하는 하는 활동가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짧은 여행, 긴 호흡’이라 불리는 그 사업공고가 나기만을 고대하는 많은 활동가들이 있다.

제 2의 이슬아를 찾아라

아직도 많은 분들이 100인 기부 릴레이를 잘 모르기도 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카톡 등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등 홍보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나눔에 대한 경험이 무척 중요하니 제2의 이슬아를 적극적으로 찾는 방법도 좋겠다고 전한다. 즐거운 기부 그리고 잘 알려내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참여하는 주자를 세상에 알려 칭찬받게 하기, 오랫동안 이꿈이활동을 했던 분들에게 안식년제 도입, 기부자의 상황에 맞게 자원봉사와 재능나눔으로도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등 그렇게 매해 30명 이상의 주자와 함께 기부 릴레이를 펼쳤던 이꿈이들의 당부가 계속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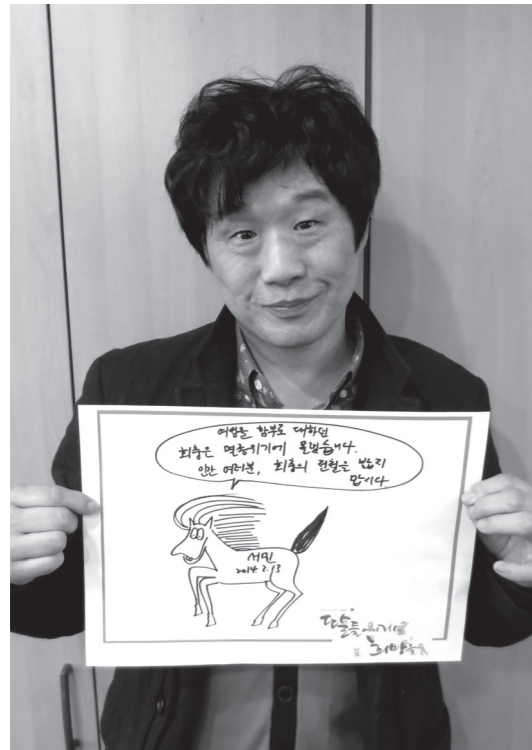
든든한 기부선배들이 있어서 올해 4월은 즐거운 한 달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젠 이꿈이들의 멘토로 100인 기부 릴레이를 멋지게 완주할 슈퍼이꿈이? 기부영웅!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영웅의 멋진 포즈로 표지 사진촬영도 함께 했다. **W**



김연순 이꿈이 이윤정 이꿈이 이슬아 이꿈이 안중길 이꿈이 이경순 이꿈이

기생충에게서 배운다, 서민교수의 기생충 열전

단국대학교 서민 교수



인터뷰 내내 그는 수줍어했다. 이꿈이 인터뷰라고 했지만 방송가의 돌아이 같은 서민교수를 정말 보고 싶다는 사심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약간은 진부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질문을 했는데도 서민교수는 시종 유머를 잃지 않고 아주 진지하게 답변해주었다. 바야흐로 2008년, 모 신문에 실린 그의 친여성주의 칼럼을 발견하고 다짜고짜 100인 기부릴레이 이꿈이 요청을 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수락했다. 그렇게 7년째 되는 올해 바쁜 서민교수가 재단을 방문했다. 그동안 방송으로 익숙해진 탓일까, 재단 실무자들의 극진한 환대에 그는 정말 수줍어했다.

"그 당시 아마 여성재단이 전화로 이꿈이 요청을 했어요. 냉큼 한다고 했지요. 여성에 관한 일들은 되도록 참여하려고 합니다. 몇 해 동안 완주를 못했는데 이번엔 완주할게요." 그렇게 시작한 인터뷰 내내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대중강좌, 그리고 최근 방송에서 보였던 약간 수줍은 미소에 독특한 어법, 다소 씩씩한 유머와 반어법이 실린 그의 답변에 설 새 없이 웃음이 났다.

Q 교수님에게 미모란?

외모지상주의잡니다. 눈이 낮아서(?) 웬만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됩니다. 특히 저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것이 양보가 가능하지 않았나 해요. 아내는 저와 살면서 7년 동안 설거지를 딱 4번 했습니다. 그것도 가슴이 아팠지요, 피곤해도 꼭 설거지하고 그런데 청소는 정말 싫어합니다.

몇마디 하지 않았는데 그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긴장감을

풀어준다.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은 재능중에 하나일 터. 어릴 때부터 타고난 것일까? "노력을 많이 했지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웃기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며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전하는 것이 지금은 그의 아주 중요한 재능이 되었다. 가끔 방송을 보면 킬투와 무척 친한 듯하여 또 한번 진부한 질문을 던진다.

Q 교수님에게 킬투란?

카메라 울렁증이 있기도 하고 한 1년 동안 저에게 방송을 많이 가르쳐주었죠. 이제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떨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학교말고도 대중강좌를 많이 하는데 좌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생긴 거 같아요. 고맙죠. 실제 킬투는 참 경험이 많은 분들이고 개그맨들의 훌륭한 멘토인 거 같아요. 후배들도 잘 챙기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방송을 해보니까 너무 힘든 분야인거 같아요.

Q 보통 쓸모없이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기생충 같다고 표현하는데요. 연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하신다면?

자신에게 해를 준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기생충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 2년 동안 강의를 다니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기생충은 나쁜 애들이 아니다. 진짜 주의해야 할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다. 감기가 독감은 1년에 몇 번을 걸려 고생하는데 아직도 기생충은 피해를 준적이 없지 않느냐'고 말해요. 잘못된 선입견이 있는 거죠.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거부감이 있는 단어임에도 서

민교수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통에 아주 조금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한다. 아하! 이게 교수님의 좌중을 휘어잡는 강의로구나를 느끼며... 그의 <기생충열전>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못된 선입견과 주의점을 적은 친대중적 기생충사전인 셈이다.

Q 평생 기생충 연구를 하셨는데요, 기생충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기생충은 사람 몸에 들어가면 아주 조용하게 적응하며 살려고 노력하죠. 인간은 지구라는 곳에서 군림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것을 파괴하지요. 석유나 각종 원료를 구하기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싸우지 말고 전쟁 등은 안하면 좋겠어요.

기생충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인간은 가진 만큼 만족하지 않고 더 얻으려고 하지요. 기생충은 딱 정해진 만큼만 취하거든요. 더 바라지 않죠.

이 작은 생물에게서 삶의 철학을 배우는 순간이었다. 그 끝에 한마디 덧붙인다. "기생충은 비만이 없어요."

그런 서민교수에게도 남다른 고충이 있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요청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의 남다른 인지도(?)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보려고요. 저의 블로그에도 100인 기부릴레이를 소개하고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보겠습니다."

즐거운 인터뷰 끝에 올해 100인 기부릴레이의 남다른 포부를 들려준 서민교수. 늘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기생충을 설명해주듯이 그가 들려주는 기부릴레이 이야기도 무척 궁금해진다. W

말할 수 있는 용기

동아대학교 국어교육대학원,
돈두뎃 리더 배재원



‘돈두뎃’은 우연하고 소소하게 시작되었다. 다음 카페 게시물에 종종 올라오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댓글을 보고 캠페인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다. 회원들은 성범죄에 대한 편견에 분노하여 하나 둘 씩 모였고, 뜻을 함께 하는 남성참가자들도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왜 성범죄에 대해서는 유독 피해자의 행실과 외향을 묻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졌다. 캠페인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의견은 같았다.

처음 모인 10명 남짓의 참여자들이 직접 손으로 피켓을 만들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캠페인 준비를 위한 피켓제작과 회의비용을 처음에는 카페 내에서 후원을 받았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만큼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참여자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캠페인 1회에 3만원으로 제한한 카페 후원금을 쪼개 사용하는 것도 버거워졌다. 이런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참여자들은 사비를 보태서 캠페인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어느날, 참여자 중 한명이 학교 교수님으로부터 경남여성회의 ‘청춘도시락’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해서 접수했고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참여자들 모두 떨 듯이 기뻐했다.

〈색깔있는 청춘도시락〉은 100인 기부 릴레이 모금액으로 지원하는 2013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선정된 경남여성회가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2~30대의 다양한 활동을 발굴 지원한 프로그램이다.

한국여성재단의 ‘청춘도시락’ 프로그램 지원으로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캠페인 ‘슬럿워크’를 기획해보기로 했다.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일본군 강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캠페인인 ‘할머니, 당신의 용기가 아름답습니다’가 그것이었다. 부산 서면 시내에 모인 30여명이 넘는 참여자들은 행인들에게 할머니께 전해드릴 손편지를 받으면서 ‘왜 일본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같이 숙연해졌다. 이런 활동을 해주어서 고맙다며 손을 잡아주시는 행인분들도 계셨다. 연합뉴스와 국제

신문에서 직접 취재까지 와주었다. 광복절 캠페인을 마치고 카페 회원 분들과 참여자들이 모금에 참여하여 130만 원 가량을 부산 유일의 위안부 역사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에 전달할 모금을 모았다. 김문숙 관장님은 연신 우리의 손을 잡으시며 ‘정말 고마워!’라고 말씀하셨다. 개인의 바쁨을 핑계로 위안부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웠다.

8월 31일에는 ‘슬럿워크’를 펼쳤다. 슬럿워크는 2011년 1월 캐나다 토론토의 요크대학에서 한 경찰관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여성은 슬럿(slut)같은 옷차림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반발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에 동참한 우리는 사회가 말하는 ‘슬럿(slut)과 같은 옷’을 입고 행진했다. 옷지 못할 일도 있었다. 슬럿워크에 참여하기 위해 탱크탑에 핫팬츠를 입고 지하철을 타고 온 참여자분께 한 할아버지가 경악하며 손가락질을 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노출을 많이 한 우리 행렬을 보고 소주병을 들고 뛰어오는 아저씨도 있었고, 남자친구의 옆구리를 찌르며 ‘좋겠네~’라는 농담을 건네는 여자도 있었다. 사건사고가 제일 많았던 슬럿워크였지만 단연 가장 자유로웠고, 가장 재밌었다.

‘청춘도시락’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오고 있다. 맹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력사건들에 대한 서명운동을 통해 온라인 5,000명, 오프라인 1,800명의 서명을 받았고 사단법인 평화캠프와 함께 강연을 주최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3월 1일, 삼일절에는 한복을 입고 사물놀이를 하면서 다시 위안부할머니들을 위한 행진을 펼쳤으며 작년 광복절 캠페인때처럼 부산 위안부역사관의 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캠페인을 통해 성범죄가 가해자를 가해자로, 피해자를 피해자로 온전히 바라볼 때 인식이 바로 설 수 있고 피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철저히 권력구조에 의해 일어나며 성폭력은 성을 이용한 끔찍한 폭력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여성들이 안전하고 조신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일어난다는 편견을 탈피하는 것과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함께 엄중한 법의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홀로 달려오는 것과, 누군가 믿고 지지해주는 것은 많은 것이 다르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캠페인을 펼쳤지만 우리가 가장 많은 성장과 가르침을 얻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낌없이 지원해준 경남여성회의 ‘청춘도시락’이 있었다. **W**

국경을 넘어 아시아지역 자매애로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박기남



꽃샘추위에 움츠러들어 있던 지난 3월, 13일부터 3일간 30도가 넘는 무더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아시아지역 자매재단들과 만났다. 사무총장을 맡은 후 처음 참석하는 회의였지만, 낯설음은 잠시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10주년을 맞은 홍콩여성재단(HER Fund)을 축하하면서 금세 훈훈한 자리가 되었다. 여성재단아시아네트워크(ANWF : Asian Network of women's Fund)는 세계여성재단네트워크(INWF: International Network of women's Fund)의 지역조직으로 7개 국가의 회원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팔, 스리랑카, 몽고, 인도, 방글라데시, 홍콩, 한국의 여성재단이 매년 한 번씩 나라들마다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빈곤, 폭력,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자

첫날은 참가한 5개 국가의 여성재단들이 1년간의 활동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배우고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각 나라의 문화와 경제적 조건은 다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빈곤과 폭력,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며, 재단들은 여성들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자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시간도 가졌다.

둘째 날은 INWF에서 여성재단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실제로 여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각 재단의 활동에 대해 적용해 보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올해 INWF는 기후변화와 여성을 주제로 국제적 규모에서 풀뿌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환경운동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활동지원기금 확보를 위한 국제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었다.

마지막 날은 이틀간 논의한 내용을 아시아지역 자매재단들이 함께 협력하고 어떻게 역할

을 분담할 것인지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세웠다. 사흘간의 회의에 대한 평가시간은 모두에게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SAWF* 사무총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려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켰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다섯 지역을 포괄하는 여성재단을 운영하기 위해 후원금을 모아야 하는 고달픔과 보람이 한 순간에 밀려 왔으리라, 그 바쁜 와중에 아시아지역회의를 준비하고 무사히 잘 마무리했다는 안도의 표현이 었을 것이다.

SAWF South Asia Women's Fund

아시아지역에서 요구받는 여성재단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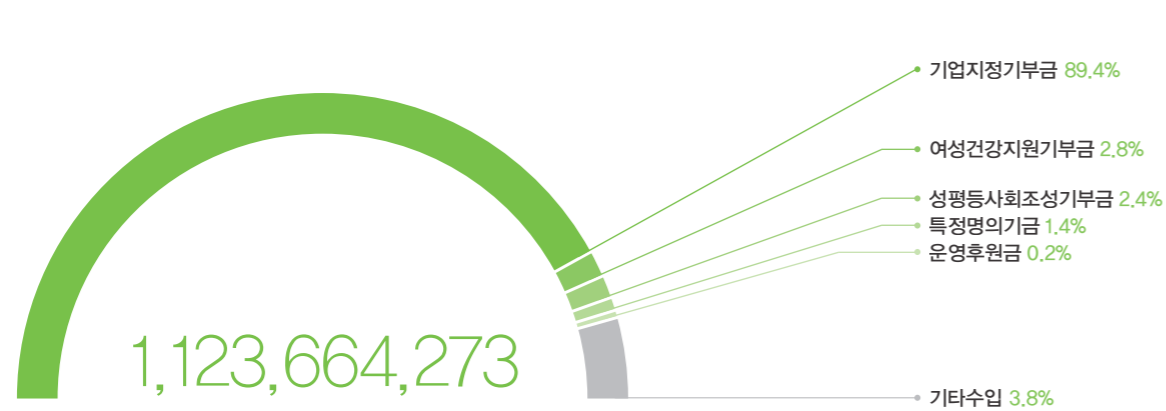
한국의 드라마, 아이돌 가수 등 한류의 영향뿐만 아니라 여성대통령을 배출한 나라라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고, 더불어 한국여성재단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 국내 재단들 중에서는 가난한 살림이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 가장 부자 살림이어서 부러움을 샀다. 아시아지역 자매재단들은 80% 이상이 해외 지원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여성들을 위해 정성을 모아주시는 개인 기부자들과 기업의 성과를 사회와 함께 기꺼이 나누고자 하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은 한국여성재단은 정말 행복한 재단임을 깨달았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왔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선진국 재단들의 지원으로 여성단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여성들의 자립과 평등을 위해 도와 차려라는 것을 깨달았다. 국내의 여성 인권 지원에만 몰두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한국여성재단이 언니재단으로서 아시아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요구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W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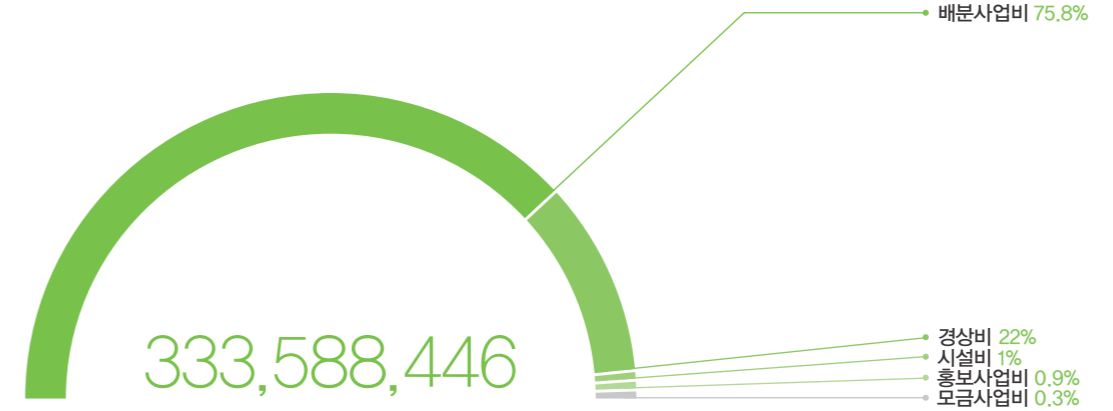
기간
2014. 1. 1 - 2014. 2. 28



항 목	내 용	금 액 (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004,750,615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안전,안심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공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7,242,903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31,331,000
특정명의기금	고사리손기금, 애경산업기금, 도호기금 등	16,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업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33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43,009,755
총 수 입		1,123,664,273

지출

기간
2014. 1. 1 - 2014. 2. 28



항 목	내 용	금 액 (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경비	1,070,630
배분사업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소외여성 · 여성가장 및 자녀, '엄마에게 희망을' 여성활동가건강지원사업 empowerment 사업 · 다문화아동 외가집 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희망날개-다문화 여성 커뮤니티 지원사업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 미혼모 자립지원사업 (CARL MARKS FOUNDATION) · 불빛장학금(탈성매매여성장학사업) · 여성건강지킴이 Project(내츄럴엔도텍)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장학사업 (유한킴벌리) · 여성공익활동가 심프로젝트-짧은여행·간호흡 (교보생명)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 기업지정사업 등	252,659,518
홍보사업비	소식지, 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3,072,019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73,482,27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3,304,000
총 지 출		333,588,446

100인 기부 릴레이 열두 번째 나눔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조형이)이 지난 3월27일(목),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2014 여성희망캠페인 100인 기부 릴레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100인 기부 릴레이는 한국여성재단이 지난 2003년부터 펼쳐온 모금캠페인으로 올해 열두 번째이다.

이번 발대식에 다문화 전문 공연팀 <몽땅>과 이주여성합창단 <행복메아리>가 100인 기부 릴레이의 성공을 응원하는 공연나눔을 펼쳤고 이호진 국군간호사관학교 소령과 온드라 서울시 명예부시장이 이꿈이 대표로 100인 기부 릴레이 출범선언을 낭독했다. 참석한 사회 각계의 기업인, 여성계,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사회 여성을 위한 희망 나눔에 동참할 계획이다.

100인 기부 릴레이는 100명의 이꿈이가 한 달 동안 친구, 학교, 직장에서 동료, 학생, 친구들과 함께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매일 기부가 이어지도록 하여 30명 이상을 조직하면 완주하는 나눔축제이다. 2014년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는 이꿈이(릴레이 대표)는 모두 126명(4.4천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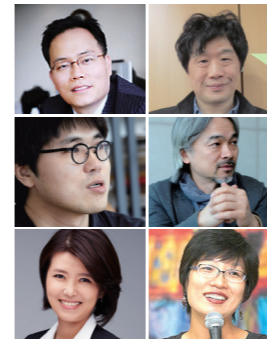
유한킴벌리 등 2014년 사회공헌활동기업 후원 약정식

이날 발대식에서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파트너 기업들과 2014년 사업후원 약정식을 진행했다. 후원기업은 교보생명, 교촌에프앤비, 내츨엔도텍, 대상, 삼성생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시그나사회공헌재단,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여성신문, 유한킴벌리, 클리오, 한화생명, LG이노텍 등 총 13개 기업이다.



2014 여성희망 캠페인

이꿈이와 기부자가 만나는 날,
한국여성재단이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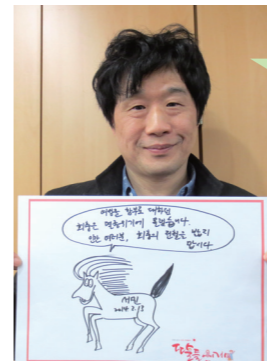


첫 번째 응원

위대한 서포터즈! 지금 만나러 갑니다

사회 각 부문에서 깊은 울림과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나눔의 현장을 찾아갑니다. 학교, 관공서 등 이꿈이와 기부자님이 있는 곳으로 권민(모라비안유스타스 대표), 서민(단국대 의대), 임의균(슬로워크 대표), 장병인(하우스컨설팅 대표), 진양혜(아나운서), 최광기(토크컨설팅 대표) 서포터즈들의 나눔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만나고 싶은 명사를 추천해주세요.



두 번째 응원

영양 듬뿍, 마음의 양식을 선물합니다

기부 릴레이 기간동안 열리는 기부자모임을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해드립니다.

교촌이 선물하는 치킨 간식

박미라 치과과사 저 <누구나 다 예쁘다>

이꿈이 서민교수 저 <기생충열전>

유재경 저 <그만뒤도 괜찮아>

클리오의 화장품세트가 화사한 봄날을 연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응원

봄날의 따뜻한 나눔이! 김미화 홍보대사가 호미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부자와의 나눔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김미화님이 귀중한 호미카페는 어떠세요? 산들바람과 즐거운 수다토크로 봄날을 만끽하세요.



신청대상 100인 기부 릴레이에 참여하는 기부자님(이꿈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신청방법 참여하고 싶은 항목을 정하고 한국여성재단에 문의해주세요
신청문의 한국여성재단 기획홍보팀 02-336-6463



중년, 신나는 청춘을 꿈꾸다

중년 여성을 위한 리더십 토크콘서트 NOW가
한국여성재단, 여성신문 주최로 지난 2월 많은 분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건강 토크콘서트,
신나는 청춘을 꿈꾸는 중년 여성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츄럴엔도텍이 여성을 응원합니다.



내츄럴엔도텍은 2001년 설립된 헬스케어 신소재 연구개발 전문 바이오 기업으로
여성재단과 함께 여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www.naturalendo.co.kr

사람들에게 희망을



2014. 2월 www.womenfund.or.kr

- 기획 2014년 여성재단 NEW 지원사업
- 나눔과 공감 2014 100인 기부 릴레이, 이꿈이들의 귀환
기생충에게서 배운다, 서민교수의 기생충 열전
- 함께 만드는 변화 <색깔있는 청춘도시락> 말할 수 있는 용기
국경을 넘어 아시아 지역 자매애로

